

## 맞벌이 가정의 주부와 남편이 보는 가사분담과 가사공간에 대한 토론

최 정 신(가톨릭대학교 교수)

이번 학술대회에의 대주제가 “일과 가족”이고 이에 대하여 여러 분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접근을 통하여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해 주신 각 전공분야의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날이 변화해가는 현대사회, 특히 모든 사회면에서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가정의 급속한 증가는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1990년대 초에 처음 북유럽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만해도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사회실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습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분단, 가정생활, 가족관계, 그리고 취업주부의 비율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지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 90%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전업주부가 2/3 정도를 차지하고, 오히려 취업주부가 매우 적다는 상황에 대하여 그들은 의아함 반(半), 부러움 반(半)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의아함 반의 의미는 아마도 어떻게 남편 혼자 벌어서 모든 가족(그것도 자녀도 그들보다 많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뜻이었겠고, 부러움 반의 의미는 밖에서 취업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하는 주부는 얼마나 시간적으로 여유로울까하는 뜻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덧 우리도 그들이 처했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급격히 증가한 중진국 또는 선진국 대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급격한 사회현상변화에 대하여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반인의 의식과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 교수님의 본 논문은 가장 미시적인 관점인 개별 가정 내에서 맞벌이 부부 간에 수행되는 구체적인 가사분담 내용, 가사분담에 대한 의식, 가사공간의 사용실태와 요구사항 등을 질적 연구로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맞벌이 가정을 위한 가사분담에 대한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인 실마리가 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논문을 읽으면서 조사대상인 30~40대의 맞벌이 부부들 간에는 이미 가사분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어서 놀랍고 한편 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남편, 또는 부인들까지도 남편이 “가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점에는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도와준다”는 말보다는 “나누어 한다”든가 “분담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공평하지 않을까요?

가정 내의 가사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의식의 전환 이외에도 남편이나 다른 가족원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부엌의 디자인과 설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누누이 강조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디자인개발을 위하여 주택건설업체, 또는 실내디자이너들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엌을 채광이 나쁜 북향에 위치시키고, 벽을 바라보고 일하게 작업대를 배치하던 통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주부 또는 남편이 가족을 바라보고 일하며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면형(對面型)이나 아일랜드(island)형 부엌을 도입해 보는 것도 권장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엌에 수납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남편들이 겪는 곤란은 수납장의 문을 불투명한 재료 대신 투명 유리문으로 처리하여 내부 수납물이 쉽게 보이도록 하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내부물건이 모두 보여 깔끔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주부 이외의 다른 가족원들이 쉽게 수납물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탁공간에 대한 불편사항, 부엌용 기계를 사용하는데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겪는 사용시간대의 불편함 등은 누구에게나, 특히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너무나 공감이가는 사항들입니다.

작업대의 높낮이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부엌 작업대도 현재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공간에만 사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신체치수에 맞게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맞벌이 가정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이 시설의 편리함을 알면서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하여 앞으로 부엌용품 디자인과 생산업체에서는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의 높낮이 조절 작업대 개발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의 맞벌이 가정의 가사분담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간의 가사분담상태를 비교하는 내용이 많았고, 그 결과 물론 맞벌이 부부 중에 남편의 가사활동 참여가 많았던 것이 결론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 중에서 연령별 차이를 두고 집단별로 가사분담상태를 비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규명해보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서 젊은층일수록 가사분담율이 높아지겠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의 제공도 추후의 연구를 위하여 의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번 논문에서 면담하였던 대상가족들이 30~40대 부부였으나 그 대상을 만일 50~60대의 보다 높은 연령층에서 면담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구과정에서 논문에 쓰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연구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